



- 연중 제21주일 - 2019년 8월 25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4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8지구 - 적성 성당



설립 1996년 11월 21일 전화 사무실 031-959-6021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칠중5길 18-5

제1독서 이사 66,18-21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ㄷ(◎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히브 12,5-7,11-13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루카 13,22-30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마지막 좁은 문



이한신 사도 요한 신부
호평동 부주임

사회에는 많은 자격시험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험 그 자체가 어렵고,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훨씬 더 많기에 확실히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더 좁은 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문으로, 또 다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문들의 연속에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좁은 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루카 12,24)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좁은 문은 그 어떤 사회의 많은 자격시험들보다 더 엄격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 없이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집주인의 기준, 자격시험에 통과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집주인이 우리를 아는가-모르는가입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문을 두드린 우리를 모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집주인을 알고 있으며, 마지막 좁은 문을 향한 첫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서 우리는 집주인을 만났고, 심지어 마지막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통과한 문은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향하는 것을 세상은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나쁜 것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는다면 마지막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하여 바른 길을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

깜박 문과 아차 문



우리 가운데의 한 보통 가장. 그의 최근 이야기다. 세상살이 속상해서 간혹 술 마시고, 돈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혼내고, 직장 생활 괴롭다 푸념도 하고, 나는 왜 이리 쪽박복이나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러다 어느덧 흰 머리칼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올해도 그의 직장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는 어느 해처럼 지정 병원에 가서 피도 조금 뽑고 소변 검사를 했다. 엑스레이도 찍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신체검사를 한 병원에서 그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날 출근길에 들르겠다고 했다.

“별일 있으려고…….”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에 찾아간 그를 간호사가 맞아 주었다. 그러고는 회랑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암 병동이었다.



“아니, 내가 암 환자란 말입니까?”

그는 걸상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암 병동 앞문 이름은 ‘깜빡 문’이라고 되어 있었다.

뒷문 이름은 ‘아차 문’ 이었고. 간호사가 문의 이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앞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생각한 건강의 소중함과 삶의 탄력을 이내 깜빡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깜빡 문이에요. 그리고 저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영안실로 가게 되지요. 그때 서야 그들은 아차한다고 해요. 깜빡 놓치고 살았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그는 면회 온 그의 아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서야 나는 진짜 삶에 대해 알았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 신세가 되었구려.

나는 저 앞문으로 나가더라도 절대 깜빡하지 않겠소. 절대 아차 문으로만 나가지 않게 해주요.”

흐느끼고 있는 그를 흔들며 깨운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웬 잠꼬대가 그렇게 심해요.

어서 일어나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그는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보, 저건 아차 문이 아니겠지?”

전화가 걸려 왔다. 어제 한 연락은 병원 측의 착오였으니 회사로 바로 나오라는 전갈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과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했다.

“우리 진짜 진짜 재미있게 살자.”

그리고 현관문을 가리키며 다짐했다.

“절대 저 문이 깜빡 문이 되지 않게 할 테니 두고 보렴.”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질서, 평화를 향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웃하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나라에는 해방의 빛이 비치고, 다른 한 나라에는 패전의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역사적 사건'이든 그 이면에는 언제나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은 광범하고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에는 '기쁨과 희망'을, 다른 한쪽에는 '슬픔과 고뇌'를 안긴 1945년 8월 15일의 역사적 사건도 그렇습니다.

8·15의 직접적 배경은 제국주의의 무모하고도 위험한 팽창의 결과로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살상하고 사회를 초토화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역사적 사건은 세계 질서 차원, 민족과 국가 차원의 광범한 영역(정치, 경제, 문화, 국제질서)에서 개인·집단적 삶에 깊고도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른바 '동·서 냉전'의 시대로 재편되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이 냉전의 전장에서 연합국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 및 군사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는 미국의 최전선을 형성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군국주의 일본의 35년 폭압적 식민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

으나, 동서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일과 함께 북·중·러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팽창을 막는 최전선을 형성하면서 '민족의 부흥과 통일'을 향한 험로를 걷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냉전의 양극 질서는 해체되고, 다극의 질서와 동시에 세계화의 길을 밟았습니다.

어느 변혁에도 그들이 있는 법이어서, 다극과 세계화가 낳은 그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 역시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민족(일국)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밖으로는 '패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위대한' 미국, 'EU 탈퇴'의 영국, '강한' 러시아, '급부상' 중국, '보통국가' 회복의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가히 '새로운 사태' '새로운 질서'라 할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식민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일'의 갈등이 불거져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

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언어와 나라, 심지어 관습마저 빼앗겼던 지난 35년간의 어둠 속을 걸었던 한민족에게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이 뜻깊은 해에 돌출한 새로운 폭력이며, 이는 과거에 저지른 불의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의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과 식민지 지배 책임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화해를 향하여’, “한일 정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과거를 마주하고, 미해결인 채 두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어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반도의 신뢰와 우호 관계가 발전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2019년 8월 15일,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담화)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자는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의 초대에 한국 천주교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일치하여 연대합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와 ‘사건과 인류의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찾아야 할 교회의 소명(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1항 참조)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잊지 않습니다. 선의의 양국 시민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이웃 간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아가는 상생의 길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패전’ 그 배경과 영향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일본’, 그리고 오늘의 ‘한일관계’를 성찰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과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 언제나 요구되는 필수적 전제 조건은 ‘참회와 정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며, 성모님의 신앙 고백(루카 1,46-55)을 그 ‘참회와 정화’의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100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간 이들을
자애로이 품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닮아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할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웃 나라와 평화의 연대로 하나 되어
마침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 주소서. 아멘.

2019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



“ 본당이야기-탄현동의 여름, ‘겨자씨의 꿈’ ”

안녕하세요! 7지구 탄현동성당 청소년부 주일학교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일~3일, ‘겨자씨의 꿈’이라는 주제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겨자씨의 꿈이란, 아직 매우 작지만 훗날 크게 자라나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신을 펼쳐나갈 꿈을 꾸는 겨자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꿈을 꾸며 쑥쑥 자라나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기에, 캠프를 통해 함께 쉬고 먹고 놀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캠프안에서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탄현동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직접 준비하는 자체 캠프였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과, 함께하는 동료 교사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첫번째 자체 피정을 준비할 꿈도 꾸어봅니다! ^^ 전국에 계신 모든 교사회 화이팅!



하일리겐슈타트에서 (1)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비엔나 시내 중심인 링 슈트라세에서 전차를 타고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면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동네에 닿습니다. 비엔나 시에 속한 되블링 지역에 있긴 하지만, 사실 전원적인 풍경이 가득한 교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립된 지방자치지역이었고, 비엔나 사람들이 휴가나 휴양을 많이 온 곳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밭이 가득해서 풍요롭고 광천수가 있어 건강을 회복하기에도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지요.

하일리겐슈타트가 비엔나 사람들의 휴식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름아니라 위대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본에서 태어난 독일사람이지만 20대 이후 비엔나에서 살았고, 명성과 고뇌로 가득한 생애를 보낸 그의 활동무대 역시 비엔나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존경한 위대한 음악가들인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베토벤이 비엔나의 고전주의 음악의 세 거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베토벤은 그의 나이 서른 둘인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비탄과 절망에 찬 짧은 글을 씁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Heiligenstädter Testament > 입니다.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동네의 이름이 시대를 넘어 전 세계 음악가들에게 강렬하게 인각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이십대의 마지막 시기에 여러 '운명의 타격'에 시달립니다. 실연의 아픔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난청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음악가로서의 경력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러한 병을 그는 쉽게 털어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 많은 오해나 고립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난관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불행이 없다면 얼마

나 좋을까! 이 세상을 자유롭게 끌어안고 싶네! (...) 매일 난 느낄 수는 있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네. 그대의 B(베토벤)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네. 결코 고요히 살지는 않을 걸세" (< 베토벤(안 카이 에르스, 흥성정 옮김, 도서출판 길, 2018, 278쪽에서 재인용).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내놓았고, 명성도 높아졌지만,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결국 심리적, 육체적 탈진 상태로 베토벤을 몰아갔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며 비엔나 시내를 떠난 전원생활을 할 것을 충고했고 베토벤은 결국 1902년 4월에 하일리겐슈타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에게 여러 걸작을 작곡할 음악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하일리겐슈타트를 찾은 초기에 작곡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작품번호 31-2인 피아노 소나타 17번, 흔히 "태풍" 또는 "템페스트"라는 곡입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만년의 걸작 <템페스트>를 읽어 보라고 했던 데서 이 부제가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 극적이어서 "폭풍과 격정 Sturm und Drang"이라는 당시의 문학사조가 떠오르게 하는 곡이기도 한데,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에 왔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더욱 곡의 깊이와 절절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매우 멋진 곡임에는 분명하고 수많은 명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데, 아직 젊지만 매우 진중하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를 감상해봅니다. 🎧

YOUTUBE로 보기



베토벤 Beethoven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Piano Sonata No.17, op.31-2 'Tempest'



미사 · 피정 ▶▶

광탄분당 설립 10주년 감사 미사 초대

일시 : 9/8(주일) 10:30 미사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광탄분당 공동체가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은인들을 기억하며 묵주기도 100만단(2016년 7월) 봉헌했으며 매미사 전 감사기도를 바칩니다. 이제 도움주신분들을 초대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시시오.(감사 미사 후 식사와 작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8/30)

주제: 제2주 심령예언과 신령한 언어의 기도

강사: 맹경순 아네스(인천교구 말씀봉사자)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010-8729-0025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8/28(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전화, 문자 모두 가능)

마리아사제 운동 첫 토요일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일시: 9/7(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장소: 지금동 성당(동부), 후곡 성당(서부)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묵주

문의: 교구 체나콜로 010-9272-4660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9/27(금)~29(일) 2박3일/회비없음

문의: 010-9318-1366 함 다미아나수녀

한국 틴 스타와 함께 합니다.

제주명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9/7~9, 9/16~18, 10/17~19

제주전체성지순례(주차도포함): 9/1~4,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일시: 9/4(첫 수요일) 9:30~16:30

장소: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접수없음, 회비없음, 김밥 판매(2천 원), 미사

준비, 개인컵준비(현장판매) 지하철 2호선 을

지로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9/7)

후원회 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8/26)

위령 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8/30)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76-17

문의: 031-926-3090

무료 성경 통독 피정

매월 마지막(화) 8/27, 11시~16시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고양시 토당동 호수로

76-17) 031-926-3090. 010-5267-1380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9/7(토) 15시~ 8(일) 16시

하루피정: 9/1(주일) 10~16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010-9746-1585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그대의 시간을 기다리며 /황정연 신부

일시/장소: 8/30(금) 10시~13시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교육 · 모집 ▶▶

민족화해센터 관리직 모집

근무시간: 주40시간(탄력적 근무 /업무특

성상 주,야간 주말근무 있음

모집 규정: 민족화해센터(www.pu2046.

kr) 공지사항 참고 /기한: 8/20(주일)까지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야당맑은연못성당 관리자 모집

자격: 세례 3년 이상, 65세미만 남녀

서류: 교적,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신부

추천서 /마감: 총원시까지(면접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접수: 우편 및 방문

2019 의정부교구장애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분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일시: 9/22(주일)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문의: 031-840-0742 ※ 홈페이지 참조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사무직원 채용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사무직원을 구합니다.

대상: 회계(복식부기 경험자) 업무, PC(워드,

엑셀) 가능한 분 /급여: 상담 후 결정, 4대보험

문의 : 031-953-5722, 010-4906-

5722, 010-5348-4020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기자(취재,편집) /구분: 신입,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문의:02-778-7679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010-2738-6795 김흥춘 사도요한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신입생 전원 희망장학금 지급

만족도 높은 쾌적한 최신 기숙사

산학협력취업패키지, 해외봉사 글로벌역량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 86명,

사회복지학과 16명, 유아교육과 14명

원서접수: 9/6(금)~10(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061-280-5108,5150

2020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기간: 9/6(금)~9/10(화)

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신학대학

전형: 학생부교과(면접고사), 실기(실기고사)

입학문의: 032-830-7012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토착학 신학당 강좌(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주제: 우울과 불안의 영적치료-이찬신부(골

롬반외방선교회) /동양철학의 인간관- 다산

(茶山)을 중심으로-오수록 수사

(작은형제회) / 개강:종강미사(유희석소장님)

일시: 9/4~11/27 매주(수) 14시~16시

장소: 연구소 서울센터(4호선 성신여대 입구

1번 출구) /대상: 평신도,수도자,성직자

수강료: 한 학기 10만 원(수도자: 5만 원)

문의: 031-227-7857

가르멜영성문화센터 교육일정

명사초청특강: 9월~12월

2020~21 영성코스 II 사전안내: 16과목 16시간

청년신앙피정:매월첫(토) 11시~18시

카톨릭플러스친구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친구추가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주말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시: 10/25~10/27
장소: 서울 등촌동 엠이만남의집
문의전화: 02-929-2141

가톨릭교리신학원 2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
9/3~9/24 매주(화) 14시~15:40, 4강좌
수강료 4만원 사전접수(8/19~29)
강사:김준성 요셉(10명 미만 시 폐강)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걷는 인생길>
9/6~11/29 매주(금) 14시~15:40, 10강좌
수강료 회당 1만원 현장접수
강사:최대한 신부(대신학교)
교무과 02-747-8501, ci.catholic.ac.kr

예수마음 배움터 영성교육

분노의 여파와 처리교육: 10/1~29(매주화 10시~15시) /옴과 함께 걷는 영적여정: 10/28-12/9 매주(월) 14시~16:30
자녀교육 1일 특강: 10/21(월) 10시~13시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및문의: 031-946-2337~8

영성강의

주제: 생태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강사: 백종연 바오로 신부
(서울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일시: 9/1(일) 13시~14:30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토당동)
문의: 010-2738-6795 김홍춘 사도요한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19~2020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9/22(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접수: 9/19(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 04535 /홈페이지: cdcc.co.kr
전화: 02-2274-1843,4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몬토노인요양원)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간·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학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9/6(금)~9/10(화)
문의: 043-270-0100

안내 · 기타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공모전

기간: 9/30까지 웹하드, 우편접수
분야: 포스터, 글짓기, 웹툰 등
공모방법: obos.or.kr 참조
주관: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심리,부부,가족

내용 전화상담전용: 02-990-9366, 월-금 10시~4시
대면상담문의: 02-990-9360, 예약후 상담진행

노인공동가정생활이용자접수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대상: 치매가 없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곡개길 98번지 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
문의: 02-381-7510 (010-5235-1130)
※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10/21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9/15 유럽4개국 성모님발현지 13일 398만 원
9/22 터키-그리스 13일 392만 원
9/28 이탈리아 중부지역 10일 369만 원
10/16 독일 수도원 11일 398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원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10/15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380만원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17, 10/4, 11/4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11,10/7, 11/7 이태리일주9일 279만 원
10/6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 원
11/1 홍콩 마카오4일 129만 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9/6 이스라엘 9일(추석연휴) 35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지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27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9/7(토) 4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일부지원사업
문의: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1 (주일) 오전 10시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고난회	8/30~9/1	청주예수고난봉쇄수녀원	010-6804-490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수시(개인 성소식별 동반)	길음동 본원	010-9900-5811



혼인성사(5) :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 11,14)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우리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에는 ‘가정사목부’가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본당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 사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신앙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가정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본당공동체와 교구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 공동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인간다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면서 한 신앙인이 ‘신앙인다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며 적의까지도 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정은 활력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오래된 표현에 따라 ‘가정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56항)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은 부모가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가르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본당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성찬 공동체이며 전례 생활의 중심입니다. 본당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교리교육을 위한 특권을 가진 장소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26항)

주일학교는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종의 사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과 교리지식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본당 공동체는 부모들의 노력에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가정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성장하여 성인이 될 것이며,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성실한 신앙생활 안에서 그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혼인성사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또 하나의 건강한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신명 6,5~7) 🎵